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 都 日 報

joongdo.co.kr

"한식조리자격증도 따고, 행복도 맛보고"

아산시, 결혼이민자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 운영

남정민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3-05-07 09:30



아산시가 위탁 운영하는 아산시 가족센터(센터장 조삼혁)가 2일부터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결혼이주 여성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과정 운영에 들어갔다.(사진은 개강 기념 촬영)

한식조리기능사 자격 과정 '행복한식(食)'은 (사)한국다문화연구원(이사장 오종민)의 지원으로 2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필기와 실기수업을 거쳐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과정을 이수한 10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3명이 최종 합격의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도 10명의 수강생이 합격에 도전한다.

중국 출신 A씨는 "아이에게 음식을 해줄 때 입맛에 잘 안 맞는 것 같아 늘 고민이었는데,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자신감을 얻고 취업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정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과 취·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